

# /ㄴ/ 첨가의 교육 방안 연구\*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

위국봉\*\*

|| 차례 ||

- I. 서론
- II. /ㄴ/ 첨가의 양상 및 원리
- III.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양상 및 오류 분석
- IV. 발음 교육 방안
- V. 결론

【       】

고급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ㄴ/ 첨가 발음 오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기존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는 /ㄴ/ 첨가 발음 교육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왔다. 한국어의 /ㄴ/ 첨가 현상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ㄴ/ 첨가 현상을 교육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본고의 2장에서는 먼저 /ㄴ/ 첨가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ㄴ/ 첨가의 양상과 원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ㄴ/ 첨가 발음 오류 실태를 조사하고 오류 분석을 진행한다. /ㄴ/ 첨가 오류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기존의 발음 교육 현장에서 /ㄴ/ 첨가 현상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ㄴ/ 첨가 교육을 받은 일부 학습자들이 /ㄴ/ 첨가를 과잉 적용하는 양상도 포착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ㄴ/ 첨가 발음의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ㄴ/ 첨가를 규칙으로 교육할

\* 이 논문은 중국 中央高校基本科研業務費專項資金資助(項目批准號: 2015QD00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Supported by the Fundamental Research Funds for the Central Universities.). 項目名稱은 韓國語專業高年級學生發音錯誤分析與矯正方案研究이다.

\*\* 中國 北京外國語大學 亞非學院

때 일어나는 /ㄴ/ 첨가 과잉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한다.

주제어: /ㄴ/ 첨가, 교육 방안, 중국인 학습자, 고급 학습자, 과잉 적용

## I. 서론

한국어에 음운 변동 규칙이 많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특히 성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을 교육할 때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어에 규칙으로 완벽히 설명할 수 없고 예외가 많이 존재하는 음운 현상들도 있다. /ㄴ/ 첨가 현상은 그 중 대표적인 음운 현상이다. ‘첫입[천닙], 첫이레[천니레], 첫이별[천니별]’과 같은 단어들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지만 ‘첫인사[처딘사], 첫인상[처딘상]’과 같은 단어들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음운론적 조건이 똑같지만 /ㄴ/ 첨가 여부는 어휘에 따라 다르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ㄴ/ 첨가 현상을 학습할 때 쉽게 혼란에 빠진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고급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ㄴ/ 첨가 발음 오류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오류율이 높은 만큼 중시해야 하는 발음 교육 내용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ㄴ/ 첨가 발음 오류를 부분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이향(2002), 장향실(2011), 강수(2013), 장설교(2013), 갈건남(2015) 등이 있고 집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는 조영(2015), 진루·김영주(2015), 진루(2016)이 있다. 하지만 진루·김영주(2015), 진루(2016)을 제외한 나머지 선행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높은 /ㄴ/ 첨가 발음 오류율을 범한다고 보고하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교육하는가 하는 것만 간단히 언급하였다. 똑같은 음운론적 조건을 가지지만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예외들을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느냐의 문제는 간과되었다. 선불리 학습자들에게 /ㄴ/ 첨가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면 오히려 /ㄴ/ 첨가의 과잉 적용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의 /ㄴ/ 첨가 오류율을 낮출 수 있으면서도 학습자의 /ㄴ/ 첨가 과잉 적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ㄴ/ 첨가 현상의 양상 및 원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ㄴ/ 첨가 발음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관련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겠다.

## II. /ㄴ/ 첨가의 양상 및 원리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서 /ㄴ/ 첨가의 양상 및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ㄴ/ 첨가 현상은 기세관(1990), 오새내(200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자의 나이, 성별 등 사회언어학적인 요소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그리고 배주채(2003: 243)에서는 /ㄴ/ 첨가 여부가 방언이나 개인에 따라 또는 같은 사람이라도 말투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고 한 바도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표준 발음을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고의 /ㄴ/ 첨가 여부 기준은 표준 발음을 따르겠다.<sup>1)</sup> 「표준 발음법」 제7

1) 익명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방언에 따라 /ㄴ/ 첨가 발음 여부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표준 발음만 가르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현재의 한국어 발음 교육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표준 발음만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습자들의 학습 요구를 고려했을 때 절대 다수의 학습자들은 표준 발음을 학습하고 싶어 한다. 또한 표준 발음과 방언 발음을 모두 교육시키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쉽게 혼란에 빠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ㄴ/ 첨가의 표준 발음만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장 제29항은 /ㄴ/ 첨가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와 같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 : 니불]	홀-이불[혼니불]	막-일[망닐]
삿-일[삿닐]	맨-입[맨닙]	꽃-잎[꼇닙]
내복-약[내 : 봉냐]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캥널차]
늑막-염[능망념]	콩-옛[콩녘]	담-요[담 : 뇨]
눈-요기[눈뇨기]	영업-용[영업뇽]	식용-유[시공뉴]
국민-윤리[궁민눌리]	밤-옷[밤 : 눈]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 : 념/거 : 멸]	올랑-올랑[올랑놀랑/올랑올랑]
금융[금냥/그똥]	

[붙임1] ‘ㄴ’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들-일[들 : 릴]	솔-잎[솔립]	설-익대[설릭대]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옛[물려]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붙임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한 일[한닐]	옷 입대[온닙대]	서른여섯[서른녀섯]
3연대[삼년대]	먹은 옛[머근녘]	할 일[할릴]
잘 입대[잘립대]	스물여섯[스물려섯]	1연대[일련대]
먹을 옛[머글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쩨]	송별-연[송 : 비련]
등-용문[등용문]		

『표준 발음법』 제7장 제29항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ㄴ/ 첨가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i’나 ‘j’계 이중 모음으로 시작할 때<sup>2)</sup> 일어난다.

② /ㄴ/ 첨가는 복합어나 구를 형성할 때 일어난다.

③ /ㄴ/ 첨가는 ①, ②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환경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먼저, ①은 /ㄴ/ 첨가의 음운론적 조건이다. 즉, /ㄴ/ 첨가의 환경은 선행 요소가 자음이고 후행 요소가 단모음 ‘i’나 ‘j’계 이중 모음이라는 것이다. 선행 요소는 공명음인지 장애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미라(2006: 122-123)에 따르면 ‘어근+어근’으로 형성되는 2음절 한자어의 경우, 선행 요소는 공명음이어야 /ㄴ/ 첨가가 일어난다. 아래의 (1, 2)을 확인해 보자.<sup>3)</sup>

(1) 급유[그뷰], 집요[지보], 복욕[보곡]

(2) 금융[금농/그몽], 검열[검널/거덜]

(1)과 (2)는 ‘어근+어근’으로 결합된 2음절 한자어의 예들인데 /ㄴ/ 첨가 여부 양상이 다르다. (1)의 예들의 선행 요소는 장애음이고 (2)의 예들의 선행 요소는 공명음이다. 이러한 구분은 한자어 파생어(예: 학습용[학쓰농], 휘발유[휘발류]), 3음절 이상의 한자어 합성어(예: 수학여행[수항녀행], 직행열차[지캥널차]), 고유어 파생어(예: 맨입[맨닙], 햇일[헌닐]), 고유어

2) 『표준 발음법』에서 뒷말의 모음을 제시할 때 ‘j’계 이중 모음 ‘ㅟ, ㅞ’를 제시하지 않았다. 뒷말이 ‘ㅞ, ㅟ’로 시작하고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예는 ‘뒷얘기[똥내기]’, ‘기본예절[기본네절]’ 등이 있다.

3) 본고에서 제시하는 대부분 예들은 김유범 외(2002), 배주채(2003), 오미라(2006), 엄태수(2010) 등 선행 연구에서 제시했던 예들이다. 일부 예들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합성어(예: 꽃잎[꼇닙], 숨이불[숨니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후행 요소의 경우, 기세관(1990), 김유범 외(2002)에 따르면 직접구성성분 중 뒷말이 ‘i’로 시작하는 한자어인 경우에는 /ㄴ/ 첨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의 (3, 4)를 보자.

- (3) 납입[나닙], 직인[지긴], 몰인정[모린정], 외국인[외구긴], 첫인상[처딘상], 은행이자[으냉이자]  
 (4) 금융[금농/그몽], 검열[검닐/거밀], 학습용[학승농], 휘발유[휘발유], 맨연습[맨년습], 수학여행[수항녀행]

(3)과 (4)의 예들의 뒷말은 모두 한자어이다. (3)의 뒷말들은 ‘i’로 시작하고 (4)의 뒷말들은 ‘j’로 시작한다. 단어 구성의 방식과 상관없이 (3)의 예들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지만 (4)의 예들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난다.<sup>4)</sup> 그러나 엄태수(2010: 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몰이해[몰리해]’, ‘불이익[불리익]’, ‘선이론[선니론]’ 등 예에서 /ㄴ/ 첨가가 일어난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준 발음을 확인해 보면 엄태수(2010: 12)에서 제시한 예 이외에 ‘순이윤[순니윤]’, ‘연이울[연니울]’, ‘몰이상[몰리상]’, ‘선이자[선니자]’ 등 예를 두루 찾을 수 있다. 대개 ‘1음절+2음절’로 구성되는 한자어들이다. 따라서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뒷말이 ‘i’로 시작하는 한자어일 때도 /ㄴ/ 첨가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②는 /ㄴ/ 첨가가 단어 및 구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종래에 기세관(1990), 김정우(1998), 김성규·정승철(2005) 등 많은 논의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첨가되는 /ㄴ/은 뒷말의 자립

4) 이진호(2012)에서 ‘j’가 ‘i’보다 /ㄴ/ 첨가 현상을 더 잘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j’의 조음 위치가 ‘i’보다 더 높고 경구개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뒷말은 어휘 형태소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5)</sup> 그러나 김유범 외(2002: 50)에서 논의했듯이 후행 성분이 자립성이 없는 접미사일 때도(예: 학생용[학생놈], 맹장염[맹장님]) /ㄴ/ 첨가가 일어날 수 있다.<sup>6)</sup> 즉, /ㄴ/ 첨가는 합성어와 ‘접두사+어근’으로 형성되는 파생어에서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근+접미사’로 형성되는 파생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ㄴ/ 첨가는 ‘한 일[한닐], 쓴 약[쓴냇]’ 등 구에서도 일어나지만 배주채(2003: 24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체로 /ㄴ/ 첨가는 구보다 단어에서 더 잘 일어난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진호(2012)에서는 구성 요소 사이의 높은 긴밀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③은 /ㄴ/ 첨가가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나이, 성별, 방언 및 개인차 등 요소를 배제하고 표준 발음만 관찰했을 때 /ㄴ/ 첨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어종이다. 배주채(2003), 이진호(20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음절 한자어는 ‘금융, 검열’을 제외하면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2음절 한자어의 경우,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생어, 합성어, 구의 경우, 어종에 따라 /ㄴ/ 첨가 여부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아래의 표를 보자.

5) 하지만 왜 ‘이’, ‘j’ 앞에서만 /ㄴ/이 첨가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김유범 외(2002: 56)에서 지적했듯이 앞말의 음절말 자음이 /ㄷ/인 경우(예: 사당역, 룡옛)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6) 이러한 접미사는 주로 몇몇 한자어 접미사들이다. 김유범 외(2002: 50)에서 제시한 접미사는 ‘-용(用)’, ‘-염(炎)’이다. 엄태수(2010: 16)에서 ‘-열(熱)’을 추가해서 제시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 접미사 ‘-율(率)’도 ‘가환율[가환닐]’, ‘감손율[감손닐]’, ‘개연율[개연닐]’ 등에서 /ㄴ/ 첨가가 일어난다.

[표 1] /ㄴ/ 첨가 여부와 어종의 관계<sup>7)</sup>

	/ㄴ/ 첨가 일어나는 예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예
고유어 접두사+어근	헛일[헌닐] 맨입[맨닙]	-
고유어 어근+접미사	-	떡이[머기] 때밀이[때미리]
고유어 합성어	숨이불[숨니불] 흠이불[흠니불]	-
한자어 접두사+어근	불이익[불리익] 신여성[신녀성]	악영향[아경향] 물인정[모린정]
한자어 어근+접미사	학습음[학쌌음] 향학열[향학닐]	한국인[한구긴] 기념일[기녀밀]
한자어 합성어	수학여행[수학녀행] 서울역[서울력]	등장인물[등장인물] 고별인사[고벼린사]
혼종어 접두사+어근	덧양말[던양말] 백여우[뱅녀우]	첫인상[처단상] 첫인사[처단사]
혼종어 어근+접미사	눈물샘염[눈물쌌님] 게임용[게임눔]	영식이[영시기] 몽골인[몽고린]
혼종어 합성어	은행잎[은행닙] 알약[알략]	눈인사[누년사] 그림일기[그리밀기]
구	한 일[한닐] 문 열대[문닐대]	힘 있다[히만따] 역 이름[여기름]

[표 1]을 보면 그나마 규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합성어와 ‘접두사+어근’으로 형성되는 고유어 복합어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한자어의 경우, 거의 형태소 또는 어휘에 따라 /ㄴ/ 첨가 여부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혼종어의 경우, 한자어와 비슷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김유범 외(2002: 53)의 지적과 같이 뒷말이 고유어인 경우, /ㄴ/ 첨가 양상이 고유어와 같고 뒷말이 한자어인 경우, /ㄴ/ 첨가 양상이 한자어와 같다.<sup>8)</sup> 구의 경우, /ㄴ/ 첨가 여부는 앞뒤 단어

7) 순수히 외래어로 형성되는 복합어와 구는 예가 매우 적은 관계로 [표 1]에 제시하지 않았다.



의 의미적 긴밀성과 관련이 있다.

위와 같이, 비록 부분적으로 /ㄴ/ 첨가 현상이 어종과 관련이 있는 것을 포착할 수 있지만 이 현상을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신지영·차재은(2003: 303)에서는 /ㄴ/ 첨가 현상에 대한 공시적 음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엄태수(2010)에서는 특히 뒷말이 ‘i’로 시작하는 /ㄴ/ 첨가의 경우, /ㄴ/ 첨가 여부는 화자의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뒷말이 ‘j’로 시작할 때도 반드시 /ㄴ/ 첨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특히 2음절 한자어의 경우) /ㄴ/ 첨가는 어휘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sup>9)</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ㄴ/ 첨가 현상을 교육할 때 /ㄴ/ 첨가를 하나의 규칙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 한국인 화자들의 어휘부에 /ㄴ/ 첨가 정보가 등재되어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특히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은 어휘별로 학습자들에게 음운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3장에서는 먼저 학습자들의 /ㄴ/ 첨가 발음 오류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8) 즉, [표 1]을 보면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혼종어는 보통 뒷말이 ‘i’로 시작되는 한자어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뒷말이 ‘i’로 시작하는 한자어인 경우, 일부 ‘1음절+2음절’의 한자어를 제외하면 /ㄴ/ 첨가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혼종어의 뒷말이 고유어인 경우, 접미사만 제외하면 거의 필수적으로 /ㄴ/ 첨가가 일어난다.

9) /ㄴ/ 첨가의 양상은 사이시옷의 개입과 비슷하게 불규칙적이다. 기세관(1991)에서는 첨가되는 /ㄴ/과 사이시옷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사잇소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유범 외(2002: 6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뒷일[된닐]’과 같은 예에서 사이시옷과 /ㄴ/이 동시에 첨가되면 결국 2개의 사잇소리가 쓰이는 것인데 기능상 잉여적이다. 또한 배주채(2003: 243)에 따르면 ‘개미약, 모기약’ 등에서 보듯이 ‘약’이 퇴치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을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데 ‘두통약, 쯤약’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구조의 단어에서 /ㄴ/ 첨가는 일어난다. 따라서 사이시옷과 /ㄴ/ 첨가는 서로 다른 현상인 것이다.

내용을 바탕으로 /ㄴ/ 첨가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Ⅲ.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양상 및 오류 분석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ㄴ/ 첨가는 불규칙적인 현상이다. 학습자들이 정확히 /ㄴ/ 첨가 발음을 하려면 해당 복합어(구 포함)의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등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초·중급 학습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교육 내용이다. 특히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초·중급 학습자에게 /ㄴ/ 첨가 현상을 가르치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ㄴ/ 첨가 현상을 고급 단계에 교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기존에 이향(200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음운 현상을 교육할 때 /ㄴ/ 첨가 현상을 가장 마지막에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다만 이향(2002)의 주장의 근거는 /ㄴ/ 첨가의 오류율이 다른 음운 현상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의 근거는 이향(2002)와 차이가 있다.

/ㄴ/ 첨가의 교육 대상을 고급 학습자로 정했으므로 학습자 발음 실태 조사 대상도 고급 학습자를 선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측정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ㄴ/ 첨가 발음 오류율은 많게는 80% 이상(조영 2015), 적게는 50% 이상(이향 2002)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개인차는 있지만 학교, 교사, 교재 등 외부적인 학습 환경도 /ㄴ/ 첨가 현상의 습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구성이 단일하면 자칫하다가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일반적인 오류 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모 대학의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오류 양상 조사가 되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조사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피조사자의 간략적인 정보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피조사자의 기본적 정보

	(가)조	(나)조
학교 소재지	한국	중국
인원수	24명	35명
기본적 사항	한국 A대학: 어학당 고급반 4명, 학부생 5명 한국 B대학: 어학당 고급반 4명, 학부생 4명 한국 C대학: 학부생 3명, 대학원생 4명	중국 D대학: 3학년 16명 중국 E대학: 3학년 7명 중국 F대학: 3학년 5명, 4학년 7명
성별	남자 4명/여자 20명	남자 8명/여자 27명
TOPIK 등급	5급 16명/6급 8명 <sup>10)</sup>	5급 21명/6급 14명
조사 실시 시점	2017년 6월	2018년 4월

(가)조와 (나)조의 학습자들은 모두 5급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가)조의 학습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지만 몇몇 학생은 중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적이 있다. (나)조의 학습자들은 모두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였지만 일부 학생은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한 적이 있다.

조사 과정은 전통적인 ‘제시된 단어 읽기’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단어는 /ㄴ/ 첨가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시켰다. 아래의 [표 3]과 같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음운론적 조건, 단어 형성 유형, 어종 유형을 모두 고려하여 단어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10) 일부 어학당 학생은 TOPIK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고급반 과정을 아직 마치지 않았으므로 모두 5급으로 처리하였다.

[표 3] 조사 단어(구 포함) 리스트

어종	첨가 여부	어근 복합	접두사+어근	어근+접미사	합성어	구
고유어	O	-	헛일 늦여름 맨입 한여름	-	꽃잎 가락잎 솜이불 서른여섯	한 일
	X	-	-	먹이 때밀이	-	힘 있다
한자어	O	-	불이익 신여성	학습용 맹장염	서울역 두통약	세계적 유물
	X	확인 협약 진입 활용	악영향 물인정	한국인 기념일	파격인사 등장인물	총 인구수
혼종어	O	-	덧양말 백여우	-	북유럽 알약 별일	문 열다
	X	-	첫인상	-	그림일기 눈인사	역 이름

조사 단어(구 포함)는 총 40개이다. 이 중 /ㄴ/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구 포함)는 22개이며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구 포함)는 18개이다. 발음 문제지를 만들었을 때 피조사자가 조사 목적을 알아내지 못하게 /ㄴ/ 첨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구 포함) 30개를 추가적으로 넣었다. 총 70개의 단어(구 포함)를 배열했을 때 순서를 임의적으로 처리하였다.

단어별로 조사 결과를 나열하면 아래의 [표 4, 5]와 같다. [표 4] 속 숫자는 /ㄴ/ 첨가 발음을 해야 하는 단어를 /ㄴ/ 첨가 발음으로 발음하지 않은 피조사자 사람 수와 백분율이다. [표 5] 속 숫자는 /ㄴ/ 첨가 발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단어를 /ㄴ/ 첨가 발음으로 발음한 피조사자의 사람 수와 백분율이다. /ㄴ/ 첨가가 일어나야 하는 단어를 읽었을 때 /ㄴ/ 첨가 발음을 했지만, 다른 데서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헛일’을 [헌니]로, ‘꽃잎’을 [꽁닙]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ㄴ/ 첨가 발음을 정확히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ㄴ/ 첨가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단어를 읽었을 때 /ㄴ/ 첨가 발음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때밀이’를 [대미리], ‘진입’을 연음화하지 않고 [진입]으로 발음 하는 경우)를 /ㄴ/ 첨가 발음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조사자들이 많이 발음한 오류 발음도 [표 4, 5]에 기입하였다.

(표 4) /ㄴ/ 첨가의 발음 오류 양상(1)

단어(구 포함)	(가)조 오류 통계	(나)조 오류 통계	대표적 오류 발음
헛일	13/24(54.2%)	19/35(54.3%)	[현일], [허덜]
늦여름	18/24(75%)	22/35(62.9%)	[늘여름], [느더름]
맨입	10/24(41.7%)	14/35(40%)	[매닙], [맨입]
한여름	14/24(58.3%)	20/35(57.1%)	[한여름], [하너름]
꽃잎	9/24(37.5%)	14/35(40%)	[꼴닙], [꼬칩]
가락엣	20/24(83.3%)	29/35(82.9%)	[가라곶], [가락엣]
숨이불	15/24(62.5%)	21/35(60%)	[소미불]
서른여섯	17/24(70.8%)	30/35(85.7%)	[서른여섯]
한 일	18/24(75%)	31/35(88.6%)	[한일]
불이익	19/24(79.2%)	27/35(77.1%)	[부리릭], [부리리]
신여성	12/24(50%)	26/35(74.3%)	[신여성], [싱여성]
학습용	16/24(66.7%)	25/35(71.4%)	[학쓰봉], [학스봉]
맹장염	21/24(87.5%)	29/35(82.9%)	[맹장염]
서울역	10/24(41.7%)	15/35(42.9%)	[서우력], [서우역]
두통약	18/24(75%)	24/35(68.6%)	[두통약]
세계적 유물	22/24(91.7%)	32/35(91.4%)	[세계적유물]
덧양말	20/24(83.3%)	28/35(80%)	[덜양말], [더당말]
백여우	20/24(83.3%)	28/35(80%)	[배겨우]
북유럽	16/24(66.7%)	26/35(74.3%)	[부규럽], [북유럽]
알약	15/24(62.5%)	25/35(71.4%)	[알약], [아략]
별일	13/24(54.2%)	24/35(68.6%)	[별일], [벼릴]
문 열다	13/24(54.2%)	18/35(51.4%)	[문열다], [무널다]
합계	349/528(66.1%)	527/770(68.4%)	-

[표 5] /ㄴ/ 첨가 발음의 오류 양상(2)

단어(구 포함)	(가)조 오류 양상	(나)조 오류 양상	대표적 오류 발음
떡이	0/24(0%)	0/35(0%)	-
매밀이	0/24(0%)	0/35(0%)	-
힘 있다	0/24(0%)	0/35(0%)	-
확인	0/24(0%)	0/35(0%)	-
협약	5/24(20.8%)	9/35(25.7%)	[협냐]
진입	4/24(16.7%)	1/35(2.9%)	[진닙]
활용	1/24(4.2%)	3/35(8.6%)	[활룽]
악영향	2/24(8.3%)	3/35(8.6%)	[양녕햡], [양녕양]
한국인	0/24(0%)	0/35(0%)	-
기념일	2/24(8.3%)	2/35(5.7%)	[기념닐]
과격인사	0/24(0%)	1/35(2.9%)	[과경년사]
등장인물	0/24(0%)	1/35(2.9%)	[등장년물]
총 인구수	0/24(0%)	0/35(0%)	-
첫인상	0/24(0%)	0/35(0%)	-
그림일기	2/24(8.3%)	3/35(8.6%)	[그림닐기]
눈인사	3/24(12.5%)	4/35(11.4%)	[눈년사]
역 이름	0/24(0%)	0/35(0%)	-
합계	19/432(4.4%)	27/630(4.3%)	-

[표 4]를 보면 (가)조 학습자와 (나)조 학습자의 /ㄴ/ 첨가 발음 오류 비례는 비슷하다. 오류율이 70%에 가깝고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조와 (나)조의 오류율이 비슷하게 나온 것은 학습 외부 조건과 크게 관련되지 않고 /ㄴ/ 첨가 발음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다. /ㄴ/ 첨가 오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원인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ㄴ/ 첨가 음운 현상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가 끝난 후에 피드백 과정에서 6개의 대학의 피조사자 59명 중, 23명(39%)은 /ㄴ/ 첨가 현상을 전혀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6명(44%)은 /ㄴ/ 현상을 조금만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자세히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피조사자

중 10명(17%)뿐이었다. 그리고 자세히 배운 적이 있다는 학생 10명 중, 2명은 참고서 등을 통해 스스로 배웠다고 응답하였다.<sup>11)</sup> 흥미로운 것은 [표 5] 속 단어들은 /ㄴ/ 첨가 발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단어들이는데 /ㄴ/ 첨가 발음을 한 학습자들은 모두 /ㄴ/ 첨가 현상을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다. 즉, 학습자들이 /ㄴ/ 첨가 현상을 학습한 후에 /ㄴ/ 첨가를 과잉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4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ㄴ/ 첨가 과잉 적용이 쉽게 발생한다.

다시 [표 4, 5]를 보자. 주목할 것은 [표 4]를 보면 다른 단어와 구에 비해 오류율이 현저히 높은 것들이 있고 현저히 낮은 것들도 있다. (가)조와 (나)조의 오류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난 단어와 구는 ‘가락엿, 땡장엿, 세계적 유물, 덧양말, 백여우’이고, 오류율이 모두 50% 이하로 나타난 단어와 구는 ‘맨입, 꽃잎, 서울역’이다. 그리고 [표 5]의 경우, 대부분 단어들은 오류율이 0%로 나타났지만 5명 이상 오류 발음을 한 단어는 ‘협약, 진입, 악영향, 그림일기, 눈인사’이다. 이 단어(구 포함)들을 다른 단어들과 비교해 보면 오류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학습자 사용 빈도수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12)</sup>

11) 앞서 진루·김영주(2015: 361)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다. 진루·김영주(2015: 361)에서 한국 국내 5급 이상인 중국인 학습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ㄴ/ 첨가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65%, 어학당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45%, 어학당에서 거의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45%로 나타났다.

12) 교사, 교재 등 외부 환경이 학습자의 단어 사용 빈도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는 학습자 사용 빈도수가 높고 어떤 단어는 학습자 사용 빈도수가 낮은지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별개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기초사전』에서 표시한 단어 등급을 참고하기로 한다. 이 사전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제작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다.

인터넷 주소는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이다.

먼저 /ㄴ/ 첨가 발음을 해야 하나 /ㄴ/ 첨가 발음을 하지 않는 단어 중 오류율이 가장 높은 ‘가락엿, 맹장염, 세계적 유물, 덧양말, 백여우’는 구 ‘세계적 유물’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의 단어는 모두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다. ‘가락엿, 맹장염, 백여우’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에서 모두 고급 수준을 초과한 단어로 나와 있고 ‘덧양말’은 아예 수록되지 않은 단어이다. 오류율이 가장 낮은 ‘맨입, 꽃잎, 서울역’의 경우, ‘꽃잎’만 중급 단어이다. ‘맨입’은 비록 『한국어기초사전』에서 고급 수준을 초과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일부 한국어 교재에 나온 단어이다.<sup>13)</sup> ‘서울역’은 『한국어기초사전』에 등급 표시가 없지만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이다. 구의 경우, ‘세계적 유물’에서 ‘세계적’과 ‘유물’은 모두 중급 수준의 단어들이지만 결합이 사용되는 확률이 ‘한 일, 문 열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한 일, 문 열다’에서 ‘하다, 일, 문, 열다’는 모두 초급 단어이고 이들의 결합인 ‘한 일, 문 열다’는 초급 단계부터 자주 쓰는 표현들이다. 특히 ‘문 열다’의 경우, 오류율이 50%에 가까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ㄴ/ 첨가 발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단어들을 /ㄴ/ 첨가 발음으로 한 학생들은 앞서 밝혔듯이 모두 /ㄴ/ 첨가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이다. /ㄴ/ 첨가 과잉 적용 비례가 높은 ‘협약, 진입, 악영향, 그림일기, 눈인사’ 중, ‘협약, 진입, 악영향’은 고급 수준의 단어들이고 ‘그림일기, 눈인사’는 『한국어기초사전』에서 등급 표시되지 않은 단어들이다. 반대로 초·중급 수준인 단어 ‘한국인, 확인, 첫인상’을 [한궁닌, 황닌, 천닌상]으로 발음한 학습자는 전혀 없었다. 이는 /ㄴ/ 첨가를 배운 학습자는 /ㄴ/ 첨가를 하나의 규칙으로 습득하고 /ㄴ/ 첨가를 과잉 적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미 익숙한 단어에는 과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3) 반면에 ‘가락엿, 맹장염, 덧양말, 백여우’를 학습 단어로 수록된 한국어 교재는 드물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ㄴ/ 첨가 발음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수업이나 일상 생활에서 일부 /ㄴ/ 첨가 단어의 발음을 습득할 수 있고, 생소한 단어를 접할 때는 /ㄴ/ 첨가 발음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ㄴ/ 첨가 발음을 학습한 적이 있는 학습자들은 생소한 단어를 접할 때 /ㄴ/ 첨가 과잉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익숙한 단어를 발음할 때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4장에서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IV. 발음 오류 교육 방안

4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ㄴ/ 첨가 양상과 3장에서 다룬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ㄴ/ 첨가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 하겠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ㄴ/ 첨가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ㄴ/ 첨가의 음운론적 조건을 학습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간단히 언급하기만 하였다. /ㄴ/ 첨가의 발음 교육 방안을 자세히 다룬 선행 연구는 진루(2016)밖에 없다. 진루(2016)에서는 /ㄴ/ 첨가 발음을 교육할 때 명시적 교육이 암시적 교육보다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율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루(2016)에서는 명시적 규칙 설명을 한 후에 즉각 필기 시험과 지연 사후 필기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명시적 규칙을 교육시킨 후 즉각 필기 시험에서 학습자들의 /ㄴ/ 첨가율은 95% 이상, 사후 필기 시험에서 학습자들의 /ㄴ/ 첨가율은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듣기 위주의 암시적 교육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의 /ㄴ/ 첨가 오류율은 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루(2016)에서

도 스스로 명시적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즉, 명시적 교육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은 /ㄴ/ 첨가 발음을 해야 하는 단어들을 정확히 /ㄴ/ 첨가 발음을 했지만 /ㄴ/ 첨가 발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 단어들도 /ㄴ/ 첨가 발음을 해 버린 것이었다.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들의 발음 오류율은 명시적 교육을 진행한 후에 크게는 두 배 정도 높아졌다. 이는 필자가 3장에서 언급한 학습자들의 /ㄴ/ 첨가 과잉 적용 현상이다. 하지만 진루(2016)에서는 /ㄴ/ 첨가의 과잉 적용을 줄이는 데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루(2016)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즉, /ㄴ/ 첨가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음운 현상인데도 학습자들에게 규칙이라고 설명한 것이었다. 따라서 진루(2016)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을 사용하면 /ㄴ/ 첨가의 과잉 적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필자는 /ㄴ/ 첨가 과잉 적용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가르치는 두 개의 반(학생 총 46명)에서 /ㄴ/ 첨가 현상을 명시적 교육 방법으로 실행해 보았다. 모든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1년 이상 학습하였고 /ㄴ/ 첨가를 구체적으로 학습한 적이 없다. 수업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표 6] /ㄴ/ 첨가 발음 수업 지도안(수정 전)

도입	여행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도 작년 늦여름에 ktx를 타고 부산에 갔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렸다.'로 수업 주제를 도입한다. /ㄴ/ 첨가 단어를 똑똑히 발음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제시	'꽃잎, 맨입, 부산역, 복유립' 등 단어의 발음을 가르친다.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 소개한다. ① 주로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뒷말은 보통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 ② 앞말은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은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한다. ③ 예외가 있다. '웃이, 먹이, 첫인상, 한국인, 확인' 등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학생들에게 개인이나 방언에 따라 /ㄴ/ 첨가 여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제시한 내용은 표준어 발음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연습	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시하고 발음해 보도록 지시한다. 15개 중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1)한여름 2)햇일 3)서른여섯 4)학습용 5)두통약 6)백여우 7)알약 8)불이익 9)신여성 10)별일 11)악영향 12)기념일 13)등장인물 14)활용 15)진입
활용	생략
정리	학생들이 연습 단계를 진행할 때 작성한 발음 표시 답안지를 회수한다. /ㄴ/ 첨가 교육 내용을 정리한다. 다른 수업 내용을 도입한다.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확인한 결과, 1번부터 10번까지 /ㄴ/ 첨가가 일어나는 예들의 발음을 모두 정확히 표시한 학생은 총 36명(78.3%)이고 2개 이하 잘못 표시한 학생은 총 5명(10.9%)이다. 반면에 11번부터 15번까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의 경우, 발음을 잘못 표시한 학생이 많다. /ㄴ/ 첨가 발음으로 잘못 표시한 학생 수는 ‘악영향’ 총 22명(47.8%), ‘기념일’ 총 26명(56.5%), 등장인물 총 21명(45.7%), ‘활용’ 총 24명(52.1%), ‘진입’ 총 23명(50%)이었다. 과잉 적용의 비율은 50% 정도가 된다.

과잉 적용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주로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연역적인 학습이든 귀납적인 학습이든 학습자들은 전통적인 규칙 습득 및 규칙 적용 형식에 익숙해져 있다. 성인 학습자들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학습 내용을 선호한다. 하지만 /ㄴ/ 첨가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음운 현상이다. /ㄴ/ 첨가 현상을 하나의 음운 규칙으로 인지할 때 과잉 적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둘째, 학습자들은 어떤 단어 및 구가 /ㄴ/ 첨가 현상의 예외인지 알지 못한다. 즉, 무지(ignorance) 때문에 과잉 적용 오류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2장과 3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ㄴ/ 첨가 현상을 하나의 음운 규칙으로 교육하기보다 어휘별로 /ㄴ/ 첨가의 발음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어휘별로 /ㄴ/ 첨가의 발음을 가르치게 되면 산만적인 부분이 없지 않고 또 /ㄴ/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를 교육할 때마다 /ㄴ/ 첨가에 대해 설명하면 시간상 비경제적이라는 단점도 지닌

다. 따라서 절충적으로 규칙 설명의 장점을 이용하고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어휘별로 강조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우선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예들을 설명할 때 하나의 규칙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되 규칙에 어긋나는 예외가 많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학습자의 기억 부담량을 줄이기 위해 예외를 설명할 때도 규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2음절 한자음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나의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14)</sup> 그리고 뒷말은 자립성이 있는 고유어라면 거의 예외 없이 /ㄴ/ 첨가가 일어나고 ‘ㄹ’로 시작되는 한자어라면 소수의 예외를 빼면 거의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낫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급 단계에 이르게 되면 뒷말의 자립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추가 내용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설명이 아니다. 그 이외의 예외들은 수업 도중에 나오면 어휘별로 해당 단어의 형태와 의미를 설명하는 동시에 발음 정보도 함께 학습자들에게 명시하는 것이 낫다. 특히 3장에서 발견한 것처럼 학습자들이 어휘별로 개별 단어의 발음에 익숙해지면 /ㄴ/ 첨가 발음 오류를 범하지 않고, /ㄴ/ 첨가 과잉 적용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예외들의 음운 정보를 어휘별로 학습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ㄴ/ 첨가의 예외가 많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지시해야 한다. 고급 단계에 올라갈수록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발음 직관이 생기게 되고 한국어 화자의 /ㄴ/

14) ‘금융, 검열’의 경우, 표준 발음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발음도 허용하고 있다.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두 예외를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첨가 발음 여부를 암묵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평소에 노래나 드라마의 발음에서 /ㄴ/ 첨가 발음을 청취하도록 하는 연습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암묵적 학습 방법은 명시적 교육에서 예외 발음을 교육하는 데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위의 교육 방안 모색 내용을 반영해서 /ㄴ/ 발음 수업 지도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표 7] /ㄴ/ 첨가 발음 수업 지도안(수정 후)

도입	<p>여행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도 작년 늦여름에 ktx를 타고 부산에 갔다. 서 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렸다.'로 수업 주제를 도입한다. /ㄴ/ 첨가 단어를 똑똑히 발음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p>
제시	<p>'꽃잎, 맨입, 부산역, 복유립' 등 단어의 발음을 가르친다.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 소개한다: ① 주로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뒷말은 보통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 ② 앞말은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은 모음 'ㅣ'나 받모음 'ㅍ'로 시작한다. ③ 예외가 많다. a. 2음절 한자어의 경우,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담입, 급유, 절약. b. 뒷말이 자립성이 있는 고유어일 때 /ㄴ/ 첨가가 일어난다. 예: 옷이(x), 떡이(x), 꽃잎, 콩엿, 맨입. c. 뒷말이 'ㅣ'로 시작되는 한자어의 경우,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첫인상, 한국인, 총인구. d. 그 밖의 예외들의 발음을 하나씩 설명한다. 예: 물이혜[몰리혜], 수업용[수업농], 맹장염[맹장념]. *학생들에게 개인이나 방언에 따라 /ㄴ/ 첨가 여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제시한 내용은 표준어 발음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p>
연습	<p>다음 단어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시하고 발음해 보도록 지시한다. 15개 중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1)한여름 2)허일 3)서른여섯 4)학습용 5)두통약 6)백여우 7)알약 8)불이익 9)신여성 10)별일 11)악영향 12)기념일 13)등장인물 14)활용 15)진입</p>
정리	<p>학생들이 연습 단계를 진행할 때 작성한 발음 표시 답안지를 회수한다. /ㄴ/ 첨가 교육 내용을 정리한다. 평소에 사전에서 /ㄴ/ 첨가 발음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지시한다. 평소에 드라마와 뉴스를 시청할 때 /ㄴ/ 첨가 발음을 들어보라고 지시한다. 다른 수업 내용을 도입한다.</p>

[표 7]을 보면 제시 단계에서 예외에 대한 설명을 많이 증가시켰다. 예외를 규칙이나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 밖의 예외들은 하나씩 발음 정보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정리 부분에서 학습자들에게 평소에 암묵적 학습 방법으로 /ㄴ/ 첨가 발음을 습득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7]의 발음 지도안으로 필자가 가르치는 반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습 문제는 바꾸지 않았다. 그 결과, 1번부터 10번까지의 단어들의 발음을 모두 정확히 /ㄴ/ 첨가를 표시한 학생은 39명(84.8%), 2개 이하 잘못 표시한 학생은 3명(6.5%)으로 나타났다. 11번부터 15번까지 ‘악영향’을 제외하면 /ㄴ/ 첨가 발음을 표시한 학생은 크게 줄어들었다. /ㄴ/ 첨가 발음으로 잘못 표시한 학생의 수는 ‘기념일’ 총 3명(6.5%), ‘등장인물’ 총 4명(8.7%)이었다. ‘활용’과 ‘진입’의 발음을 잘못 표시한 학생은 없었다. 반면에 ‘악영향’을 /ㄴ/ 첨가 발음으로 표시한 학생은 30명(65.2%)으로 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과잉 적용이 되었던 단어들의 오류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예외에 대해 더 잘 제시한 부분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악영향’은 ‘그 밖의 예외’의 부류에 속한 단어이다. 학습자들이 ‘그 밖의 예외’의 발음 정보를 규칙이나 예외의 제약을 통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오류율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 단어에 대해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어휘별로 음운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ㄴ/ 첨가 발음 교육에 대해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고급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ㄴ/ 첨가 발음 오류율이 무려 50%-80%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진루(2016)을 제외하고 /ㄴ/ 첨가 발음에 대해 교육 방안을 자세히 제시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진루(2016)에서는 명시적 규칙 설명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 방법으로 발음 교육을 실행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ㄴ/ 첨가 과잉 적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본고 2장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서 /ㄴ/ 첨가 현상의 양상 및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ㄴ/ 첨가는 일부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공식적으로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음운론과 형태론에 모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어휘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ㄴ/ 첨가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 3장에서는 먼저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ㄴ/ 첨가 발음 실태를 분석하였다.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기존 발음 수업에서 /ㄴ/ 첨가 발음을 중요시하지 않고 자세히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발음 오류 분석을 통해 발견한 또 하나의 요점은 사용 빈도수가 높을수록 /ㄴ/ 첨가 발음 오류율과 /ㄴ/ 첨가 과잉 적용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ㄴ/ 첨가 현상을 학습하는 데에 어휘별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명시적 규칙 설명 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ㄴ/ 첨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ㄴ/ 첨가 오류율이 현저히 낮아졌으나 /ㄴ/ 첨가 과잉 적용률도 상당히 높아졌다. 어휘별로 /ㄴ/ 첨가 발음을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시간상 비경제적이라는 문제들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4장에서는 /ㄴ/ 첨가 현상 중 규칙이나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적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규칙이나 제약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어휘별로 발음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와 동시에 학습

자들의 암묵적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명시적 교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험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의 /ㄴ/ 첨가 오류율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ㄴ/ 첨가 과잉 적용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참고문헌】

- 갈건남, 『북경어권 중국인 학습자 중심으로 한국어 음운 현상 습득 양상』,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강수, 『학습단계별 발음 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현상 발음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기세관, 『국어의 음운 탈락 및 음운 첨가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2, 순천대학교 어학연구소, 1990, pp.17-68.
- 기세관, 『첨가음 /ㄴ/의 기능』, 『어문론총』 12·13,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1991, pp.27-52.
- 김성규·정승철,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유범·박선우·안병섭·이봉원, 『ㄴ'삽입 현상의 연구사적 검토』, 『어문논집』 46, 민족어문학회, 2002, pp.41-71.
- 김정우, 『ㄴ-삽입의 음운론과 형태론』,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1998, pp.789-814.
- 배주채,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2003.
- 신지영·차재은,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2003.
- 엄태수, 『ㄴ첨가에 대한 표준어 규정의 연구』, 『국제어문』 50, 국제어문학회, 2010, pp.7-28.
- 오미라, 『ㄴ-삽입 환경의 재검토』,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2006, pp.117-135.
- 오새내, 『현대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진호,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2012.
- 이향,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설교,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 규칙 습득 양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장향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규칙 습득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2011, pp.367-390.
- 조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ㄴ'첨가 발음 오류 양상』,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진루·김영주,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ㄴ/음 첨가에 대한 지식과 실현 연구』,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교육』 4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5, pp.359-389.  
진루, 『중국어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ㄴ-/음 첨가 습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인터넷 자료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Plan of Korean /n/-insertion

– Focusing on Chinese advanced level learners –

Wei, Guofeng

Chinese advanced level learners make a lot of utterance errors in Korean /n/-insertion phenomenon. However, most of precedent studies on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did not regard the teaching plan of Korean /n/-insertion as important. Korean /n/-insertion is an irregular phenomenon. Therefore, teaching Korean /n/-insertion to foreigner learners is an exceedingly difficult problem. In Chapter 2 of this study, precedent studies on Korean /n/-insertion are reviewed, considering all aspects of this phenomenon. In Chapter 3, errors that Chinese advanced learners make on Korean /n/-insertion and analyze are investigated. In Chapter 4, plans on teaching Korean /n/-insertion to Chinese advanced level learners are suggested. Particularly, plans are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application which happens when teaching the phenomenon as a rule.

Key Word : /n/-insertion, teaching plan, Chinese learners, advanced level learners, excessive application

위국봉

소속 : 中國 北京外國語大學 亞非學院 朝鮮語專業 講師

전자우편 : wgf871124@naver.com

이 논문은 2018년 7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9월 7일 게재 확정됨.